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2, pp.145-152, May 31, 2020.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0.6.2.145
JCCT 2020-5-19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음주 관계 연구

A study on factors associated with job stress and drinking levels in emergency room nurses

곽은미*, 이주영**, 윤희장***

Kwak, Eun-mi*, Lee, Joo Young, Yun, Heejang*****

요 약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정도와 음주 수준을 조사하고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3개 도시에 위치한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106명을 대상으로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평균은 45.93±6.81점이었으며, 음주사용장애군은 18.9%로 나타났다. 음주수준은 간호사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χ^2=8.249, p=.041), 직무스트레스는 결혼 유무(t=-2.72, p=.008)와 지속적인 근무 희망 여부(t=-2.272, p=.02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무스트레스와 음주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r=-.147, p= .000)가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라 응급실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음주수준을 낮추는 것에도 기여하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직무스트레스와 음주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 응급실간호사 배치인력관리 정책이나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주요어 : 응급실, 간호사, 스트레스, 음주, 융합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egree of job stress and drinking levels among emergency room nurses an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 between these variables.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completed by 106 nurses working in emergency room of hospitals from 3 different citi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job stress score was 45.93±6.81 points, while 18.9% of the subjects were in the disordered alcohol use group. Differences in drinking levels were found according to the work experience of the nurses (χ2=8.249, p=.041), while significant differences in job stress scores were found according to marital status (t=-2.72, p=.008) and desire to continue working (t=-2.272, p=.025).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drinking level (r=-.147, p= .000). Measures to lower job stress among emergency room nurses are need based on the findings in the study and it is expected that decreasing the drinking level of nurse would contribute to this.

Key words : Convergence, Drinking, Emergency room, Nurse, Stress

*정회원,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제1저자)
**정회원,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교신자)
***정회원,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참여저자)
접수일: 2019년 11월 11일, 수정완료일: 2019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08일

Received: November 11, 2019 / Revised: November 26, 2019
Accepted: December 08, 2019
*Corresponding Author: jylee@gch.ac.kr
Dept. of Nursing, Gyeonbuk College of Health, Korea

Ⅰ.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응급실은 긴급한 건강 문제가 발생한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일차적 의료서비스 제공 장소로 연간 응급실 이용대상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응급실은 일반병동과 다르게 다양한 진료과의 환자가 내원하고 대상자의 수나 중증도를 예측할 수 없으며 감정조절의 문제가 있는 환자나 취객으로 인한 폭력, 환자와 보호자의 수많은 요구 등이 발생하여 의료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곳이다[1]. 응급실의 전문 의료인 중 많은 인적자원을 차지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항상 긴장 속에서 근무하며 즉각적이고 정확한 업무수행을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2]으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응급실 간호사는 일반병동 간호사에 비해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4].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에 존재하는 보편적 현상으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인간의 삶에 역동적 힘으로 작용하지만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로 스트레스는 응급실 간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며[5], 직무만족과 조직에 대한 헌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건강상태와 관련이 있고[4], 조직의 몰입도 낮아져 간호사로 하여금 소진을 경험하게 한다[7]. 그러므로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요인이며,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과학적,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직무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직장인들은 음주와 흡연을 쉽게 선택하고 있으며, 특히 음주는 일시적이든 장기적이든 생화학적 독성을 일으켜 급성중독에 의한 사고의 손상, 만성적 질병과 알코올 의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8]. 또한 음주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방법은 업무능력을 저하시키고[9] 지각이나 금전적 손해 등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스트레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간호사의 경우 극도의 긴장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흔하고 생명의 사선에 놓인 환자를 대할 때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발휘해야 하는데 음주를 통한 판단력의 상실은 이차적인 의료사고와 부적절한 근태관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직무스트레스와 음주와의 관련성은 많은 연구들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문제음주의 영향요인을 조사한 결과 직무스트레스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10],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군에서 음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11]. 직장인의 문제성 음주와 직무스트레스 요인의 관계 연구에서도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음주와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12]. 이렇듯 선행연구들에서 높은 직무스트레스는 음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무스트레스가 높은 직업군인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응급실 간호사에게 초점을 맞추어 직무스트레스와 음주의 관계 및 관련요인을 검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군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를 선택할 확률이 높으며, 문제음주는 업무능력 저하 및 대상자의 건강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직무스트레스와 음주수준을 분석하고 두 요인의 관계를 파악하는 융합적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사 근무부서 중 스트레스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제시된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제 직무 스트레스 정도와 음주 현황을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음주의 상관성을 분석함으로써 직무스트레스와 음주문제 감소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음주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음주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실 간호사의 특성, 직무스트레스, 음주의 정도를 파악한다.

2) 응급실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차이를 파악한다.

3) 응급실 간호사의 특성에 따른 음주수준의 차이를 파악한다.

4)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음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음주수준을 파악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음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 D시 및 D시 총 3개 도시에 소재한 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간호사를 대상자로 편의표집 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7년 4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였고, 자료 수집 전 연구자가 간호부서장과 응급실 수간호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시행하였다.

총 1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그 중 109부가 수거되었으나 응답내용이 부족한 3부를 제외하고 106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3. 연구 도구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결혼 여부, 종교, 최종 학력을 조사하였고, 직업적 특성으로는 부서 선택 의지, 병원경력, 응급실 경력, 직위, 응급실 지속 근무희망 여부를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2) 직무스트레스

장세진 등[13]이 개발한 '단축형 한국인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총 24문항이며 직무요구 4문항, 직무자율 4문항, 관계갈등 3문항, 직무 불안정 2문항, 조직체계 4문항, 보상부적절 3문항, 직장문화 4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점수는 문항 당 1~4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각 하위요인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수식은 아래와 같다.

$$\text{영역별 환산점수} = \frac{\text{실제점수-문항수}}{\text{예상가능한 최고점수-문항수}} \times 100$$

$$\text{직무 스트레스 총 점수} = \frac{\text{각 영역의 환산 점수의 총합}}{7}$$

이 도구를 사용한 선행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78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72이었다.

3) 음주

세계보건기구(WHO,1992)에서 개발 한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AUDIT)를 김용석[14]이 한국인의 특성에 맞게 번안한 한국형 알코올 간이선별 검사(AUDIT-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의 범위는 0점-40점이다. 1-8번 문항은 문항별 기준에 따라 0점에서 4점까지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9-10번 문항은 문항별 기준에 따라 0점, 2점, 4점의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결과 총점 12점 이상일 때 문제음주, 15점 이상은 알코올 남용, 26점 이상은 알코올 의존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의 민감도는 85.7~96.9%, 특이도는 79.5~100%였으며, Cronbach's α는 .92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 .86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음주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t-test 및 ANOVA를 사용하였다.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수준은 카이검정을 사용하였다.

5) 음주수준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는 피어슨 상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94명(88.7%), 남성이 12명(11.3%)이었고, 연령은 30세 미만이 60명(56.6%), 30-39세가 26명(24.5%), 40세 이상이 20명(18.9%)이었다. 결혼유무는 미혼이 74명(69.8)으로 더 많은 비율을 나타냈고, 종교를 가진 경우가 46명(30.2%), 무교인

경우가 60명(56.6%)이었다. 직무관련 특징으로 부서선택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조사한 결과 자의에 의한 경우가 58명(54.7), 타의에 의한 경우가 48명(45.3%)이었다. 간호사 경력은 5년 초과인 경우가 52명(49.1%)로 가장 많았고, 1-3년(22.6%), 1년 미만(17.0%), 3-5년(11.3%) 순이었다. 응급실에서 근무한 경력을 조사한 결과는 1년 미만이 34명(32.1%)로 가장 높았고, 1-3년(26.4%), 5년 초과(22.6%), 3-5년(18.9%) 순이었다. 직책은 일반간호사가 86명(81.1%), 주임간호사가 14명(13.2%), 수간호사가 6명(5.7%)이었고 응급실 근무를 계속하길 희망하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96명(90.6%)이 '그렇다', 10명(9.4%)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2.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의 전체평균은 45.93±6.81점 이었다. 가장 점수가 높은 하위영역은 직무요구로 62.11±13.17점 이었고, 가장 점수가 낮은 하위영역은 관계갈등으로 33.75±7.50점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N=106)

Variable	Categories	M±SD	Range
Job Stress	Job demand (JD)	62.11±13.17	0-100
	Insufficient job control (IJC)	48.43±10.55	
	Interpersonal conflict (IC)	33.75± 7.50	
	Job insecurity (JI)	37.11±18.87	
	Occupational system (OS)	47.01±13.62	
	Lack of reward (LR)	49.69±13.30	
	Organization climate (OC)	43.40±12.32	
	Total	45.93± 6.81	0-100

3. 응급실 간호사의 음주수준

응급실 간호사의 음주수준을 조사한 결과 정상음주군이 86명(81.1%), 문제음주 13명(12.3%), 알코올남용 6명(5.7%), 알코올 의존 1명(0.9%)으로 나타났다. 문제음주, 알코올남용, 알코올 의존을 모두 포함하는 음주사용장애군은 18.9%였다(Table 2).

Table 2. 응급실 간호사의 음주수준 (N=106)

Characteristics	Number(%)
Nomal	86(81.1)
Problem drinking	13(12.3)
Alcohol abuse	6(5.7)
Alcohol dependence	1(0.9)

* AUDIT-K score ≥12 problem drinking, ≥15 alcohol abuse, ≥26 alcohol dpendence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결혼을 하지 않은 군(46.89±7.43)이 결혼을 한 군(43.70±4.48)보다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결혼 여부(t=-2.72, p=.008)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응급실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군(46.40±6.84)이 그렇지 않은 군(41.35±4.78)보다 상대적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272, p=.025)(Table 3).

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수준의 차이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수준을 분석한 결과 간호사경력(χ2=8.249, p=.041)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근무경력 1년 이하, 5년 이상인 경우에서 음주수준이 높게 나타났다(Table 4).

6. 음주와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총점(r=-.147, p=.000)과 하위요인 중 관계갈등(r= .191, p= .050), 직장문화(r=-.347, p= r000)는 응급실 간호사의 음주점수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Table 5)

Table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차이 (N=106)

Characteristics		Job stress		
		M±SD	t/F	p
Sexuality	Male	48.41±6.84	1.347	.181
	Female	45.61±6.78		
Age	≤30	46.39±7.31	.694	.502
	30-39	46.09±6.71		
	≥40	44.33±5.31		
Marital status	Married	43.70±4.48	-2.72	.008*
	Unmarried	46.89±7.43		
Religion	Yes	46.46±7.62	.708	.481
	No	45.52±6.16		
Select departments	Self-Directed	45.98±7.05	.083	.934
	Unself-Directed	45.87±6.60		
Total job career(year)	< 1 year	45.28±5.20	.147	.931
	1-3 year	46.66±8.29		

Table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차이

(N=106)

Characteristics		Job stress		
		M±SD	t/F	p
	3-5 year	45.77±7.76		
	> 5 year	45.84±6.41		
Current Department career(year)	< 1 year	45.40±7.56	1.555	.205
	1-3 year	48.19±6.47		
	3-5 year	45.52±7.92		
	> 5 year	44.37±4.46		
Job position	General nurse	46.49±7.28	2.015	.139
	Charge nurse	44.38±3.76		
	Head nurse	41.40±1.02		
hope work in the current department	Yes	46.40±6.84	3.036	.009*
	No	41.35±4.78		

Table 5. 응급실 간호사의 음주수준과 직무스트레스 상관관계

(N=106)

Variable	Categories	Problem drinking	
		r	p
Job stress	Total	-.147	.000
	Job demand (JD)	.001	.991
	Insufficient job control (IJC)	-.092	.347
	Interpersonal conflict (IC)	.191	.050
	Job insecurity (JI)	-.073	.457
	Occupational system (OS)	-.135	.167
	Lack of reward (LR)	.002	.981
	Organization climate (OC)	-.347	.000

Ⅳ. 논의

본 연구는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문제음주수준을 밝히고 둘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중재 및 절주 혹은 금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총 100점에 45.93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급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48.08점[15]으로 나온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야간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과 긴박한 응급상황, 폭력적이거나 술 취한 환자를 상대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유 등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한다. 하위영역 중 직무요구가 62.11점으로 가장 높았고, 보상부적절이 49.69점, 직무자율이 48.43점 순이었다. 이는 응급실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5]에서 직무요구영역이 65.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상금종합병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는 직무스트레스 중 의사나 보호자와의 갈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이는 위중한 환자가 많고 책임감과 긴장감이 높은 응급실 고유 업무와 병원의 다양한 평가 등의 행정적업무가 간호사의 직무 부담을 가중시킨 결과로 생각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 응급실 간호사의 음주수준은 정상음주군 81.1%, 문제음주군 18.9%로 나타났다. 응급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7]에서는 문제음주군이 31.5%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선행연구의 경우 문제음주를 8점 이상으로 분류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도구개발 당시 제시한 기준인 12점 이상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소방공무원의 음주수준을 조사한 선행연구의 경우[18] 8점 이상을 문제음주군으로 분류하여 12.5%로 측정되었고, 본 연구의 응급실간호사의 문제음주군은 12점 이상으로 분류하여 18.9%로 나타나 응급실간호사의 문제음주군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음주수준 12점이상으로 분류했을 때 문제 음주군이 22.4%로[12] 본 연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같은 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분류했을 때 여성 직장인의 1%가 문제음주군으로 분석되어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이 대다수인 응급실간호사의 18.6%가 문제음주군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여성 음주수준 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다양한 스트레스원에 노출되어 있는 응급실간호사가 해결 방법의 하나로 음주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음주수준은 근무연한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근무경력 1년 미만에서 가장 많은 음주문제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연령은 30세 미만, 미혼의 응급실간호사가 문제음주군에 가장 많이 속해 있었다. 응급실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나이가 어릴수록 문제음주자가 많았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남성근로자들은 근무경력이 10년이상[19], 40대[1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 대상자 중 기혼자가

Table 4.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음주수준 차이 (N=106)

Characteristics		Problem drinking			
		Normal(%)	Alcohol use disorders(%)	χ^2	p
Sexuality	Male	8(66.7)	4(33.3)	1.850	.234
	Female	78(83.0)	16(17.0)		
Age	≤30	48(80.0)	12(20.0)	.273	.872
	30-39	22(84.6)	4(15.4)		
	≥40	16(80.0)	4(20.0)		
Marital status	Married	28(87.5)	4(12.5)	1.214	.205
	Unmarried	58(78.4)	16(21.6)		
Religion	Yes	36(78.3)	10(21.7)	.438	.618
	No	50(83.3)	10(16.7)		
Select departments	Self-Directed	44(75.9)	14(24.1)	2.324	.143
	Unself-Directed	42(87.5)	6(12.5)		
Total job career(year)	< 1 year	11(61.1)	7(38.9)	8.249	041*
	1-3 year	18(75.0)	6(25.0)		
	3-5 year	10(83.3)	2(16.7)		
	> 5 year	47(90.4)	5(9.6)		
Current Department career(year)	< 1 year	24(70.6)	10(29.4)	3.957	.266
	1-3 year	24(85.7)	4(14.3)		
	3-5 year	18(90.0)	2(10.0)		
	> 5 year	20(83.3)	4(16.7)		
Job position	General nurse	68(79.1)	18(20.9)	1.826	.401
	Charge nurse	12(85.7)	2(14.3)		
	Head nurse	6(100)	0(0.00)		
hope work in the current department	Yes	76(79.2)	20(20.8)	.2.568	.202
	No	10(100)	0(0.00)		

30.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혼자 중 문제음주군이 21.6%, 기혼자 중에서는 1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기혼의 여성의 경우 육아와 가사의 일로 동료들과 여가를 보낼 시간이 부족하여 음주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이는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20]에서 20, 30, 40대 순으로 음주양이 감소한다는 것과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음주율이 높다는 것과 유사하다.

응급실간호사의 음주수준과 직무스트레스(r=-.147, p= .000)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관계갈등(r= .191, p= .050), 직장문화(r=-.347, p= r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보면 직장인의 경우 남성의 경우에는 직무불안정과 보상부적절 스트레스가 문제성 음주와 연관성이 있었고, 여성의 경우는 조직문화스트레스가 문제성 음주와 연관이 있다[12]고 나타났다. 소방관의 경우에서도 직무스트레스의 총점과 음주수준은 관계가 있는 것을 나타났으며 하부요인 중에서는 관계 갈등이 높을수록 음주수준도 높다고 보고되어있다[10]. 여성소방관의 경우에는 직무스트레스 총점과 음주 수준에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18]. 응급실간호사의 대부분이 여성이나 소방관과 같이 응급상황에 팀을 이루어 대처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관계갈등과 음주수준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응급실간호사의 특수한 업무환경이 음주수준과 관계가 있으며 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응급실간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으로 관계갈등의 해소와 스트레스 대처 교육을 통한 음주수준의 경감이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실간호사를 대상으로 음주수준과 직무스트레스의 정도를 조사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음주수준은 간호사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1년 이하의 근무경력이 낮은 경우 문제음주군에 많이 포함되었다. 직무스트레스는 결혼의 유무와 지속적인 근무 희망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와 음주수준의 관계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응급실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관리할 방안이 필요하며 직무스트레스의 관리는 음주수준을 낮추는 것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응급실간호사 배치인력관리 정책이나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응급실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응급실간호사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비롯되는 직무스트레스를 명확히 진단하기 위한 종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음주수준과의 상관관계만 규명하였는데 응급실간호사의 음주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할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1] Kim, M. J., Park, J. M., Lee, J. H., Cho, J. H. & Chung, S. P., Cause, effect and coping skills of stress in physicians and nurses of an emergency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ine, 19(4), 428-433. 2008.

[2] Kim, B. J., Lee, E. N., Kang, K. H., Kim, S. S., Kim, S. A., Sung, Y. H. & Lee, H. J., A study of job analysis of the emergency room nurse.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2(1), 81-95. 2006.

[3] Yoon, C. K. & Lee, H. N., A study on the job stress of nurses in hospit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ealth Statistics, 28(2), 95-109. 2003.

[4] Hong M. S., Lee . M., & Jeong K. I., Work stress and work performance in emergency room nurses. Chonnam journal of Nursing Science. 11(1)1, .97-108. 2006.

[5] Lee, Y. L. & Ahn, S. H., Impact of Job Stress on Turnover Intention among Emergency Room Nurse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22(1), 30-39. 2015.

[6] Oh, M. O., Sung, M. H., & Kim, Y. W., Job stress, fatigue, job satisfaction and commitment to organization in emergency department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17(2), 215-227. 2011.

[7] Kim, H. K., Ryu, E. K., Lee, H. J., Yun, S. E., Jeon, M. K. & Kim, H. J., Factors influencing on burnout of the nurses in hospitals. Clinical Nursing Research, 10(2), 7-18. 2005.

[8] Lee, J. K., Socio-demographic and Geospatial Factors Influencing Drinking - Spatial Analysis us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Mental Health & Social Work. 42(4), 143-173. 2014.

[9] Kim, H. R., Park, S. K. & Lee, E. J., Employee Drinking and Work Performan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10), 267-279. 2015. DOI : https://doi.org/10.5392/JKCA.2015.15.10.267

[10] Jo, S. D. & Park, J. B.,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alcohol-use disorders among firem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2(1), 133-140. 2012.

[11] Kim, E. J., & Lim, J. Y., A correlational study of job stress, drinking and smoking of local government staffs.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16(1), 61-69. 2010.

[12] Lee, D., Lim, S. W., Shin, D. W., Oh, K. S., & Shin, Y. C.(2017). Job stress associated with problematic alcohol drinking in Korean employees. Anxiety Mood, 13(1), 39-45. 2017.

[13] Chang, S. J., Koh, S. B., Kang, D., Kim, S. A., Kang, M. G., Lee, C. G. & Kim, J. W., Developing an occupational stress scale for Korean employe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17(4), 297-317. 2005.

[14] Kim, Y. S., A epidemiological study on the prevalence of alcohol use disorders among the Korean adult population. Korean Jounal of Social Welfare, 37. 67-88. 1999.

[15] Ha, D. G., Sung, M. H., Impact of Job Stress, Coping Behavior, Hardiness on Burnout in Nurses in the Emergency Department.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7(4), 215-223. 2018

[16] Kwak. S. H., Hyun S. K., Exploring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the Comprehensive Nursing Service.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5(2), 23-30. 2019. DOI : http://dx.doi.org/10.17703/JCCT.2019.5.2.23

[17] Lee, Y. P., Association between food intake and stress in emergency room work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19.

[18] Yoo, S. W., Kim, K. S., Park, C. Y., Kim, M. G., The Problem Drinking and Related Factors in Female Firefighters,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24(2), 124-132.

2012.
[19] Ha, Y. M., Jung, M. R., Factors associated with Problem Drinking in Korean Male Employees for Drinking Motivation, Job Stress, and Drinking Refusal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4(1), 48-56. 2015. DOI : http://dx.doi.org/10.5807/kjohn.2015.24.1.48
[20] 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4th(2008). 2008